

무전공, 정원 10% 모집... 최종 시행 계획 7월 결정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무전공 제도 확대-3회
무전공 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 회차에서는 무전공 제도의 안착에 성공한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동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학교도 무전공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기획조정처는 오는 7월까지 전형별 모집 인원, 교육 커리큘럼,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에선 우리학교가 어떻게 무전공 제도를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무전공 모집인원 확정
내년부터 캠퍼스별 10% 선발

우리학교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캠퍼스별로 입학정원의 10%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등 예체능 계열 중 실기 100% 선발학과와 보건의료계열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전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또한 정원 준증이 이뤄진 첨단학과로, 교육부가 발표한 보호 지침에 따라 선발에서 제외된다. 전형별 세부 모집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획조정처는 추후 분석을 통해 검토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캠은 165명, 국제캠은 241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서울캠은 기존 자율전공학부 정원이 포함된 수치로 기존 자율전공학부보다 늘어난 정원으로 운영된다. 국제캠은 내년부터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 운영한다.

서울캠은 빅데이터응용학과, 회계세무학과, 경영학과에서 약 15~20%의 무전공 인원을 할당했으며 그 외 학과에서 약 5% 인원을 할당했다.

국제캠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서 약 25%의 무전공 인원을,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유전생명과학과에선 15%의 인원을 할당했다. 그 외 학과에서는 약 7%의 인원을 할당했다.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30명 미만의 소형학과에서는 인원을 할당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된 광역모집의 전공 선택

우리학교 무전공 제도 시행 방향	
모집인원	- 캠퍼스별 정원의 10% 선발 - 서울캠 165명 (기존 '자율전공학부' 확대) - 국제캠 241명 ('자율전공학부' 신설)
운영방식	- 복수전공제 원칙 - 전공탐색 과목, 전공 결정 세미나, 인턴십, 진로 탐색 강좌 등 운영 -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무전공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도우미 제도 운영
학과별 무전공 인원 할당 비율	
서울캠	15~20% 할당 학과 → 빅데이터 응용학과, 회계세무학과, 경영학과 5% 할당 학과 → 그 외 학과
국제캠	25% 할당 학과 →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15% 할당 학과 →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유전생명공학과 7% 할당 학과 → 그 외 학과
※양캠 모두 30명 미만 소형 학과에서는 인원 할당하지 않음	

현황과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정됐다.

다만 무전공 신입생은 전공 선택 시 각 캠퍼스에 소속된 학과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정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동건 팀장은 "이원화 캠퍼스이지만 캠퍼스의 위치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어 정원 확대가 불가하다"며 "무전공의 취지에 따르면 사실 이런 장벽이 없어야 하는데 상위권이 존재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기 학과 쏠림 현상
대안은?

무전공 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인기 학과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다. 2025학년도 이후, 매년 학과별 지원 결과를 분석해 선호도가 낮은 학과의 최소 인원 보장 안을 마련하고,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은 무전공 제도가 복수전공제를 원칙으로

운영될 것이라 밝혔다. 기획조정처 김동건 팀장은 "오래전부터 무전공 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복수 전공제나 다중 전공제 등을 강조해 학생에게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무전공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복수전공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크로스리스팅'의 활성화가 거론된다. 크로스리스팅은 타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수강해도 본인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크로스리스팅 도입을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기획조정처 김 팀장은 "단과 대학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과에서는 기초과목을 더 많이 배워야 하는데, 특정 과목을 공통으로 하게 되면 이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곳도 있다"며 "만약 해당 과목을 듣는다고 이를 무조건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전공의 공간 부족, 교강사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행정 인프라 지원 TF가 만들어졌다. 기획조정처는 공간을 무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단과대별 공간 공유, 온라인 강좌 확대, 대규모 강좌 운영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부족한 공간을 어떻게 보완할지 공간 사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며 "한 전공에 학생 쏠림이 발생한다면, 다른 단과대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행정 지원 인프라 TF에서 같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조정처는 현재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제도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어떤 대학은 대학원 지원을 강화하거나, 다전공, 전과 유연성 확보, 자기 설계 전공 의무화 등을 운영 중"이라며 "이를 참고해 다양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학교의 현실과 문화에 맞는 결론, 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전공 신입생 학교 적응과
진로탐색 돕는 장치 마련 중

무전공 입학생의 진로탐색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장치 마련을 위한 계획도 수립 중이다. 진로 탐색을 위한 장치로는 전공 탐색 과목 운영, 전공 결정 세미나, 인턴십, 진로 탐색 강좌, 전공별 교육과정 안내 등 상담 제공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팀장은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공 탐색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고 전공과도 잘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학과장 또는 교원과 전공 선택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상담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무전공 신입생의 빠른 적응을 위한 도우미 제도도 시행 예정이다. 무전공 신입생은 학과 소속감과 직속 선배의 부재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획조정처는 이를 이화여대의 멘토·멘티 제도에서 착안했다. 이화여대는 2018년도부터 무전공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조정처 김보영 차장은 "이화여대 무전공 제도의 가장 주요했던 성공 요인은 멘토·멘티 제도였다"며 "선후배 간 서로 상담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금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정해진 전공보다는 다양한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며 "이러한 전환 시대에서 무전공 제도를 통해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길러내고 싶다"고 전했다.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은 "무전공 제도는 기존 자율전공학부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며 "진로 및 전공 탐색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탄력적인 학습 체제를 통해 우리학교만의 교육을 다시 디자인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를 밝혔다.

무전공 선발의 전형별 선발 인원 및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오는 7월 말 교육혁신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혁신 연구위원회는 지 학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홍충선 국제 학무부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전공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했다.